



프랑스의 대입제도와 바칼로레아

정기수 | AMOPA 한국협회 회장

I. 들어가는 말

한국의 교육은 지금 중병을 앓고 있다. 학교 권위의 실추와 사설학원의 창궐, 엄청난 과외비¹⁾의 지출, 갈팡질팡하는 입시제도와 시험지옥 등이 같은 한국 교육병의 근원에는 대입제도가 있다. 사실이 그렇다면, 이 교육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대입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객관식 선다형 방식인 우리 수능시험과는 달리 사교력과 판단력, 창의력과 표현력을 기르고자 하는 프랑스의 주관식 논술형 시험인 바칼로레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II. 프랑스의 입학제도

프랑스에서 바칼로레아는 고등교육 진학의 열쇠이다. 이것 없이는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할 수 없는 것이다. 고등교육에는 장·단기의 두 과정이 있다. 장기과정은 4~5년 또는 그 이상이 필요한데, 대학, CPGE²⁾, 상업학교, 기사학교, 또는 어떤 고등 전문학교들이 그것이고, 단기과정은 IUT, STS³⁾, 각종 전문학교 등으로 보통 2년이 소요된다.

바칼로레아 합격자들은 대학에 무시험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그들 중 절반이 대학 제1기 과정인 DEUG⁴⁾를 취득하지 못하고 탈락한

1) 여기서 '과외비'란 '교외학습비' 즉 사설학원비를 포함한 각종 과외비를 가리킨다. 다른 사람들은 이를 '사교육비'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호칭이 아니다. 왜냐 하면 사람들은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공교육'이라 하고 따라서 사립학교 학비는 사교육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사립학교는 공교육이 아니라 사학 즉 사교육이므로, 사립학교 학비도 사설학원비와 마찬가지로 사교육비인 것이다.

2) CPGE : Classe préparatoire aux grandes écoles(그랑데콜 준비반)은 특정의 고등학교에 병설되어 있다.

3) IUT : Institut universitaire de technologie(대학 기술원)는 대학에 병설되어 있고, 2년간에 DUT : Diplôme universitaire de technologie(대학기술학위)를 준비한다. STS : Section de techniciens supérieurs(고등기술자반)은 일부 고등학교에 병설되어 있고, 2년간에 BTS : Brevet de technicien supérieur(고등기술자 자격증)을 준비한다.

4)DEUG : Diplôme d'études universitaires générales (대학 일반교육 수료증, 2년과정).

| 구분 | 계열 | 내용 |
|------|-----|--|
| 일반부문 | 3계열 | 문과, 경제·사회, 이과 |
| 기술부문 | 8계열 | 3차산업 과학·기술, 산업 과학·기술, 실험실, 농학·환경 과학·기술, 과학·기술, 의료·사회학, 농식품 과학·기술, 음악·무용 기술, 호텔경영 |

다.⁵⁾ CPGE와 IUT, STS의 입학은 서류전형 과/또는(and/or) 면접과/또는 테스트로 이루어진다. CPGE는 바칼로레아 성적 최우수자들이 들어가서 2, 3년간 시험준비교육을 받은 뒤(무상교육) 치열한 경쟁시험을 뚫고 상업학교, 기사학교 등의 등용문인 그랑데콜에 들어간다. 취직이 잘되는 STS와 IUT, 특히 IUT는 경쟁률이 평균 5대 1이고 인기학과는 10대 1도 넘을 정도이지만 제1학년 말에 23%의 학생이 탈락한다(1회에 한하여 유급이 가능함).

1. 바칼로레아란 무엇인가?

바칼로레아(baccalauréat)란 중등교육을 마치고 치르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수여하는 '대학의 첫째 학위 또는 그 시험 자체'이다. 이 학위는 대학 입학자격증이자 동시에 중등교육 졸업증이라는 이중의 성격을 갖는다. 바칼로레아 학위 소지자들은 더 이상의 시험 없이 대학에 들어간다. 그러나 그 밖의 고등교육기관들에 들어가려면, 이 시험에 합격한 후, 혹은 서류전형(또는 서류전형과 면접, 간단한 테스트)을 거치고 혹은 치열한 경쟁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바칼로레아 제도는 1808년 나폴레옹 황제에 의해 창시되었으니, 교육의 '백년대계'를 넘어 '200년 대계'가 벌써 그

때에 세워진 셈이다. 이 제도는 그 후 발전하여 지금은 애초의 바칼로레아 즉 '일반 바칼로레아' 외에 '기술 바칼로레아'와 '직업 바칼로레아'를 더 갖게 되었다.

프랑스 젊은이들의 같은 또래에서 차지하는 바칼로레아 학위 취득자의 비율은 1945년 3%, 1975년 25%에서 2000년 62%로 크게 늘어났다. 2000년 바칼로레아에 629,000명이 응시하여 502,000명이 합격하였으니 5명의 수험생 중에서 4명이 합격한 셈이다(합격률 80%). 100명의 바칼로레아 취득자들 중 52명은 일반 바칼로레아를, 30명은 기술 바칼로레아를, 18명은 직업 바칼로레아를 취득하였다.

2. 고등학교와 바칼로레아

고등학교는 세 개의 길 즉 일반교육, 기술교육, 직업교육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은 일반 및 기술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은 직업고등학교에서 제공된다. 일반 및 기술고등학교에서는 3년간에 앞 페이지의 표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은 바칼로레아를 준비시킨다. 학생들은 제1학년 말에 일반 바칼로레아와 기술 바칼로레아의 두 부문 중 하나를 선택한다. 이 때 제1학년에 이수한 2개의 필수 선택과목(이를 '결정과목'이라고

5) 대입제도에 관한 더 자세한 것은 『대학교육』 vol.124(2003 7/8) p.112를 참조 바람.

한다)을 통하여 자기의 취미와 적성을 검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제2학년 일반부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일반 바칼로레아의 세 계열 중 하나를 준비한다는 것이다. 그 목표는 대학, 그랑데콜, IUT 등과 같은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는 것이다. 이 세 계열의 바칼로레아의 교육은 필수과목들(프랑스어, 수학, 역사-지리, 외국어 등)과, 제2학년에는 '필수 선택과목'이라고 불리고 최종학년에는 '전공과목'이라고 불리는 또 하나의 과목으로 구성된다. 제2학년 기술부문에서는 기술 바칼로레아의 여덟 계열 중의 하나를 준비하는데, 그 목표는 BTS, DUT, 전문학교 등과 같은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는 것이다. 기술 바칼로레아의 교육은 일반 과목들과, 각 계열의 전문성과 관련된 기술과목들로 구성된다.

3. 일반 바칼로레아(3계열)

1) 문과 바칼로레아(Bac L)

여기에서는 독서가 관건이다. 그러나 다독, 탐독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독서에서 얻은 자기의 생각을 가다듬고 분석하고 종합할 줄 알아야 한다. 요컨대 논술할 줄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고2에서는 17~20세기 프랑스 문학 작품의 철저한 분석에 중점을 두고, 논술과 논증의 기술, 작품 논평의 기술을 닦는다. 고3에서는 프랑스어 대신 철학이 등장한다. 철학은 인간과 인간의 세계와의 관계에 관련된 관념들에 관해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혼자서 생각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 끝으로 고2와 고3에서의 프랑스어와 문학교육은 프랑스와 외국문학의 완전한 작품들(고대에서 현대까지)의 연

구를 제공한다.

2) 경제·사회 바칼로레아(Bac ES)

이 계열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특히 엄밀한 종합정신이다. 그들의 애독물은 사회문제를 다룬 책과 정기간행물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경제·사회학이다. 수학과 응용수학은 경제나 사회과학 연구에 유익하고, 역사와 지리 역시 현대와 세계를 이해하는 데 커다란 중요성을 갖는다.

3) 이과 바칼로레아(Bac S)

추상의 능력, 관찰과 실험의 감각, 엄밀성과 방법의 자질, 학습의 조직과 규칙성, 이런 것들이 이과 바칼로레아의 학생들에게 필요하다.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과목들은 수학, 물리, 화학, 생명·지구과학 등이다.

4. 기술 바칼로레아(8계열)

1) 3차산업 과학·기술 바칼로레아(Bac STT)

기업체의 경제적·법률적 환경, 그 관리와 통신의 기술을 탐구한다.

2) 산업 과학·기술 바칼로레아(Bac STI)

7개의 산업 관련 전공과 1개의 응용예술 전공으로 나뉘며, 각 전공마다 기술교육이 3분의 2, 일반교육이 3분의 1을 차지한다.

3) 실험실 과학·기술 바칼로레아(Bac STL)

3개의 전공이 있는데, 어느 전공이든 간에 일반과목들, 특히 과학과목들이 대단히 중요하다(수학, 물리학, 화학).

4) 의료·사회학 바칼로레아(Bac SMS)

학생들은 보건·사회구조와 인체생리학을 알아야 하고, 일반교양도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

“

한국 교육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대입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객관식 선다형 방식인 우리 수능시험과는 달리
사고력과 판단력, 창의력과 표현력을 기르고자 하는
프랑스의 주관식 논술형 시험인 바칼로레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5) 농식품 과학·기술 바칼로레아(Bac STPA)

농산식품의 가공과 상업화에 흥미를 갖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2개의 전공이 있으나 오직 농업고등학교에서만 제공된다.

6) 농학·환경 과학·기술 바칼로레아 (Bac STAE)

4개의 전공이 있고 농업고등학교에서 준비한다. 생명과학(생태계, 식물, 동물 등), 자연과 환경의 개발에 중점을 둔다.

7) 음악·무용 기술 바칼로레아(Bac TMD)

기악 또는 무용을 선택한 학생들은 일반교육과 기술교육의 균형을 위해 고등학교와 음악학교에 규칙적으로 다닌다.

8) 호텔경영 바칼로레아

교육목표는 식당 경영업, 접대, 숙박업의 전문가를 길러내는 것이다. 일반과목들 말고도 매주 10시간 이상을 실습(조리, 서비스, 숙박)에 바치며, 그 밖에 8주간의 연수를 한다.

5. 직업 바칼로레아

제2, 3차 산업 내에 약 50개의 직업 바칼로레아가 있다. 학생들은 직업고등학교에서, 그

리고 또 기업체의 견습으로 준비한다. 교육은 기술과 직업과목들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기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연수(평균 16주간)를 한다. 직업 바칼로레아는 기술자, 사무원, 고급 기능공으로서 곧바로 취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 우수한 직업 바칼로레아 취득자는 고등학교에서 또는 견습으로 BTS를 준비할 수 있다.

6. 바칼로레아 시험은 언제, 어떻게 치러지는가?

바칼로레아 시험은 두 그룹으로 나뉜다. 모든 수험생들이 고3 말에 각자의 바칼로레아 계열에 따라서 9~10개의 필수과목 시험을 친다. 그러나 고2 말에 미리 치르는 과목들이 있다. 이제까지는 프랑스어뿐이었으나, 2002년부터는 첫째 그룹 시험성적의 만회 또는 인상을 위하여 학생이 원하는 선택과목 시험도 고2 말에 칠 수 있게 되었는데, 문과계열은 과학과 수학-정보과학을, 경제·사회계열은 과학을 각각 선택한다.

첫째 그룹의 시험 결과, 20점 만점에 평균 10점 이상이면 결정적으로 합격이고, 평균 8점 이하면 불합격이며, 평균 8점과 10점 사이

면 이 성적의 만회를 위하여 둘째 그룹의 시험을 치는 것이 허가된다. 이 경우 수험생은 첫째 그룹의 시험 때 섰던 필수 필기시험과목들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하여 구술시험을 받는다. 그 결과 더 나은 쪽의 점수만을 채택하여 20점 만점에 평균 1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된다. 수험생이 첫째 그룹의 시험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도록 돕기 위해 2학년 말에 최대한 2개의 선택과목에 한하여 시험을 미리 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 경우 평균 이상의 점수만이 고려를 받는다.

고교 3년간의 학생기록부에는 교사의 소견과 함께 매학기의 성적부가 기재되어 있는데, 바칼로레아 때 시험관은 필요하다면 이 기록부를 사용하여 수험생의 점수를 올려 주되, 결코 깎아내리는 일은 없다.

성적 평가는 어떻게 하는가? 20점 만점에 평균 16점 이상은 TB(Très bien 수), 14~16점은 B(Bien 우), 12~14점은 AB(Assez bien 양), 10~12점은 Passable(가), 10점 이하는 A journée(낙제)이다. 고3 학생이 바칼로레아에서 8점 이하로 낙제했으면 고등학교로부터 '최종학년 수준'임을 증명하는 '수학증명서'를 받고, 둘째 그룹의 시험에서 8점 이상으로 낙제했으면 '바칼로레아 수준'임을 증명하는 '중등교육 필증'을 받는다. 이 필증은 당연히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2003년 바칼로레아 필기시험은 다음과 같이 2주간 5일에 걸쳐서 실시되었다.

- 일반 바칼로레아 : 6월 12(목), 13(금), 16(월), 17(화), 18일(수)
- 기술 바칼로레아 : 6월 12(목), 13(금), 18(수), 19(목), 20일(금)

바칼로레아는 필기와 구술(또는 실기) 그리고 체육·스포츠 시험으로 구성된다. 필기와 구술시험 과목은 각 부문별, 계열별로 다르다. 철학, 프랑스어, 역사-지리(이상 모든 계열), 경제·사회학(경제·사회 계열), 수학(이과 계열)은 네 시간 동안에, 그 밖의 과목은 세 시간 동안에, 각 과목당 보통 3 문제 중 택일하여 5~6쪽의 소논문을 써낸다. 이 논술형 시험이 수능의 선다형과 어떻게 다른가를 볼 수 있도록 Rennes 교육국의 2001년과 2002년도 일반 바칼로레아 시험문제들을 예시한다.

• 철학(문과, 2001년)

- I.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정확한 대답을 인정할 수 있는가?
- II. 모든 권력에는 폭력이 따르는가?
- III. (Hume의 글을 내놓고) '이 글의 철학적 흥미를 논하라'

• 역사 - 지리(문과와 경제·사회 공통, 2002년)

- 제1부 역사(3 문제 중 택일, 10/20점)
- I. 1945~1991년간의 미·소 관계
 - II. 1940~1944년간의 독일 점령에 맞선 프랑스 국민
 - III. (관련 자료를 주고) 1947~1969년간 프랑스에서의 드골이즘
- 제2부 지리(두 문제 중 택일, 10/20점)
- I. 러시아 - 국토의 유·불리점
 - II. 일본 - 국토의 조직.

• 프랑스어(모든 계열 공통, 2001년)

- I. Victor Hugo의 문장을 주고 4개의 질문(10/20점)과 글짓기 '2001년 1월 1일의 신년사로 국가원수가 더 좋은 세

상의 도래를 희망할 수 있는 이유를 개진한다. 그의 연설문을 작성하라'(10/20점)

II. Jules Laforgue의 시 한 편을 주고 2개의 질문(4/20점)과 이 시에 관한 문학적 해설(16/20점)

III. 문학적 주제에 관한 소논문 작성 : 문과에 대해서는 보들레르의 '악의 꽃'과 관련, 경제·사회와 이과 계열에 대해서는 마리보의 희곡과 관련된 주제를 주고 소논문을 짓게 함.

• 경제·사회학(경제·사회 계열, 2002년)

I. 소논문 작성 - (6개의 자료를 주고) '성장은 어느 정도로 불평등을 경감할 수 있게 해 주는가?'

II. ('정부당국의 경제·사회적 역할'이라는 테마 아래 4개의 자료를 주고)

A. 6개의 예비질문 (10/20점)

B. 종합 질문 (위의 예비연구에 기초하여) : 'Euro화 시행의 이점을 진술한 후 그것으로부터 귀납되는 EU 회원국들의 경기대책을 위한 속박을 제시하라' (10/20점).

7. 바칼로레아 취득 후 어디로 가는가?

학생들은 고교를 마치고 모두 대학에 진학한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고등교육기관들이 매우 다양하여 진로의 폭이 넓고 선택이 어렵다.

1) 일반 바칼로레아 소지자들의 진로

이들 중 가장 우수한 학생들은 CPGE로 가고, 그 다음은 IUT와 STS로 가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대학으로 간다. 2000년도에 일

반 바칼로레아 소지자들의 62%가 대학에 진학했다. 문과는 문학과 언어학, 예술 DEUG 쪽으로 가고, 경제·사회과는 대거 경제·경영 DEUG에 등록하고, 이과는 과학과 의학, 약학 방면으로 진학했다. 법과는 프랑스에서도 역시 인기학과인 모양이어서, 문과의 25.2%, 경제·사회과의 37.7%, 이과의 12.7%가 법학 DEUG에 들어갔다(대학 62%(일반학과에 법학 포함), CPGE 12.2%, IUT 10.5%, STS 9%, 전문학교 6.31%(상업학교 1.4%, 기사학교 1.4%, 예술·문화학교 1.2%, 진료보조학교 1%, 건축학교 0.4%, 사회분야 학교 0.15%, 공증인학교 0.06%, 기타 0.7%)).

2) 기술 바칼로레아 소지자들의 진로

기술 바칼로레아 소지자들도 갈수록 더 많이 대학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2000년도에는 26.6%가 대학에 진학했다(STS 57.2%, 대학 26.6%, IUT 12.1%, CPGE 1.3%, 전문학교 3.48%(진료보조학교 1.05%, 사회분야 학교 0.97%, 예술·문화학교 0.58%, 상업학교 0.47%, 건축학교 0.13%, 공증인학교 0.05%, 기사학교 0.03%, 기타 0.2%)). 기술 바칼로레아는 단기의 고등교육기관 진학이 주종을 이루지만(STS와 IUT 합계 69.3%), 장기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하는 학생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도중에 탈락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8. 바칼로레아가 한국 대입제도에 주는 시사점

이상으로 프랑스의 대입제도와 바칼로레아

“

필자가 생각하는 대입제도 개혁의 요체는, 객관식 선다형 방식을 지양하고
 바칼로레아 모델의 주관식 논술형 방식을 도입하는 것,
 그리고 이 논술시험을 고등학교 졸업인정시험 겸
 대학 입학자격시험으로 삼는 것이다.

”

가 한국과 어떻게 다른가를 보았을 것이다. 아래에 몇 가지 요점을 들어 보자.

첫째, 바칼로레아는 고등교육기관 진학에 유일무이한 필수조건이다. 한국의 대학입학에는 수능 외에 너무나도 많은 요소들이 개입할 뿐만 아니라 수능을 꼭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이는 바칼로레아가 200년 이래 절대적인 가치를 확보해 오고 있는 반면, 수능은 그 가치와 신빙성이 박약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둘째, 바칼로레아는 주관식 논술형 방식으로서 사고력과 판단력, 창의력과 표현력(필기와 구두)을 기르는 교육을 할 수 있게 하는 시험제도이다. 객관식 선다형의 수능은 주입식 암기 교육만을 능사로 하게 한다. 그러므로 수능은 덜 교육적이다.

셋째, 바칼로레아는 그 출제와 채점 그리고 감독을 고교교사들이 관장하고 대학교수는 단지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직만을 맡아본다. 수능에는 대학교수들의 참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넷째, 바칼로레아는 필기시험만도 2주간 5일에 걸쳐서 실시하고, 근소한 차이로 합격점

미달인 수험생을 구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점수 만회의 수단과 제2의 시험 기회를 제공한다. 수능은 여러 과목들을 단 하루, 단 한 번에 해치운다. 이는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이다.

다섯째, 바칼로레아는 일반부문 3 계열, 기술부문 8 계열로 나뉘어 있어 학생들은 고1부터 진로를 정해 시험준비 공부를 하고, 그대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한다. 한국에서는 일반고등학교⁶⁾, 실업고등학교, 외국어고, 과학고 등 각종 형태의 학교가 있으나 이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잡다한 수능의 영역과 과목 그리고 천차만별의 대입전형방식의 미로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헤맨다.⁷⁾

끝으로, 프랑스에서는 일찍이 고교과정에서 전공을 결정하여 수준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므로 대개의 경우 대입 초부터 그 길로 정진해 나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교에서의 사정이 그렇지 못하고, 대학 교양과정은 엉성하기 짝이 없는데다가, 설상가상으로 학부제하에서는 사실상 제2학년해야 전공이 확정되므로, 대학생들이 저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6) 사람들은 이를 '인문고등학교'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 인문·사회·자연과학을 함께 담고 있는 학교를 어떻게 '인문' 학교라고 할 수 있겠는가?


7) 이런 사정은 2005학년도부터 실시될 선택형 수능시험으로 경감은커녕 더 가중될 것이다.

Ⅲ. 맺는 말

앞(Ⅰ. 들어가는 말)에서 한국의 교육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대입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거니와, 필자가 생각하는 대입제도 개혁의 요체는, 객관식 선다형 방식을 지양하고 바칼로레아 모델의 주관식 논술형 방식을 도입하는 것, 그리고 이 논술시험을 고등학교 졸업인정시험 겸 대학 입학자격시험으로 삼는 것이다.⁸⁾ 그렇게 되면 점차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학교권위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학원에의 의존도도 점차 줄어들 것이다. 왜냐 하면 논술시험제 아래서는 학교가 그에 부응하는 교육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학교교육에 만족하면서, 학원에 의지하기 보다는 자기 힘으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논술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이 동시에 여러 대학에 입학신청을 하면, 각 대학은 별도의 시험 없이 자율적으로 전형 입학시키면 될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⁹⁾ IT가 충분히 발달된 우리나라에서도 능히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대학들은 신입생 입학전형을 위해 지불하던 크나큰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천하의 수재들이 모여드는 CPGE 같은 데서도 따로 시험 없이 바칼로레아 성적을 믿고 전형하는데, 왜 우리나라 대학에서 논술시험 합격자들에게 따로 더 시험을

치게 하거나 다른 전형요소들을 개입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종전에 선다형 수능성적만 가지고 입학시키지 않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지만 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능과 대입전형제도는 너무나도 복잡하여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대학들의 전형방법은 그야말로 천차만별, 수백 개 대학의 입시요강과 전형방법을 다 수록하기 위해서는 가히 한 권의 책이 필요할 지경이다. 학부모, 학생, 교사 할 것 없이 모두들 정말 곤혹스럽다. 교육의 대원리에 입각하여 대폭 간소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과 같은 지리멸렬한 상황은 우리나라에 올바른 교육철학이 없고 진정한 지성이 없음을 말해 주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왜 우리는 유서 깊은 선진제국의 제도를 비교 연구하고, 온 국민의 지혜를 모아서 훨씬 더 합리적이고 교육적인 대입제도를 창출할 수 없는가? 

정기수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Bordeaux 대학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전북대학교, 서울대학교, 공주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였고, 공주대학교에서 정년퇴임하였다. 현재 AMOPA(Association des Membres de l'Ordre des Palmes Académiques : 프랑스 교육·문화훈장 수훈자 협회) 한국협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La Corée et l'Occident - la culture française, 한국과 서양 - 프랑스문학의 수용과 영향, La Diffusion de la culture française en Corée - Université de Bordeaux III, "Problèmes posés sur la traduction d'oeuvres françaises en coréen" 외 다수가 있다.

8) 물론 이러한 시험은 그 운영이 더 어렵고 훨씬 더 많은 인력과 경비가 든다. 그러나 교육다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 1992년의 경우 프랑스는 62만 5천 명의 바칼로레아 수험생을 위하여 2억 프랑을 지출하였다. 그렇지만 이 같은 막대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2백 년 전통의 이 시험제도를 결코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9) 『대학교육』 vol.124(2003 7/8) p.112 참조.